

# 사사기 Judges



## 1. 사사기 배경 및 전체 구조

기억을 되새겨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후에 이스라엘이 율법(토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기록합니다.

‘사사기’라는 이름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세워진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들 "사사(Judge)"들이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는 법정의 판사와는 다릅니다. 이 사사들은 지역,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며, 부족의 족장에 더 가까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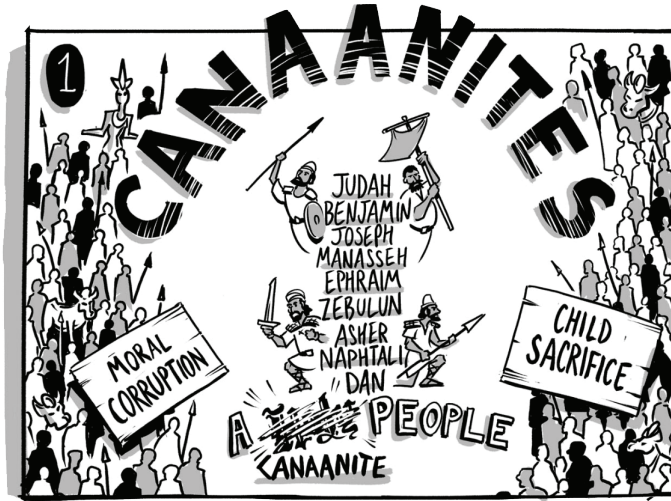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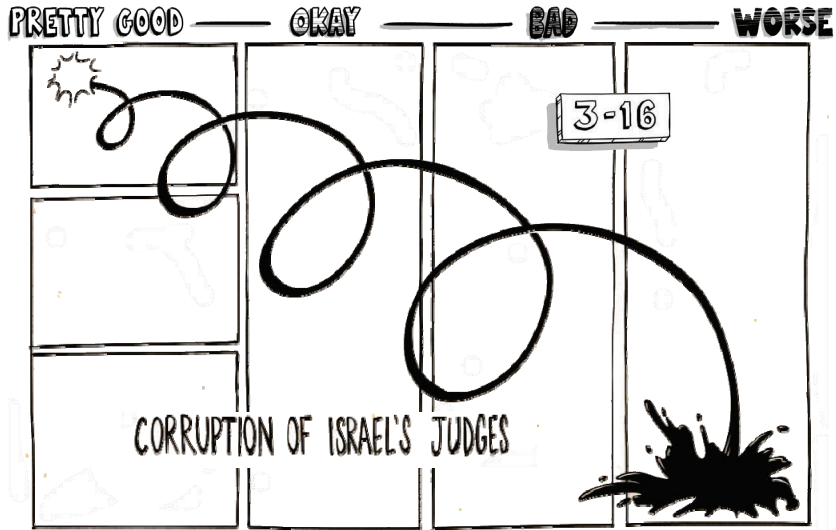
그리고 사사기는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임을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사사기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 악한 리더십,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슬픈 이야기에서 미래의 희망이 나오도록 되어 있음을, 이 책의 구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론(1~2 장)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배경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본론 부분 (3~16장)에서는 점점 심해지는 이스라엘 사사들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꽤 '좋다'가 '보통'이 되고, '나쁘게' 되고 더 나빠지게 됩니다.

결론 부분(17~22장)은 정말 충격적이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패했음을 보여줍니다.



### 2. 서론: 사사기의 상황과 패턴 설명

자 이제 각 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할당 받은 곳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주요한 가나안 성읍들을 점령했지만, 정복해야 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도적적인 부패를 피하고,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피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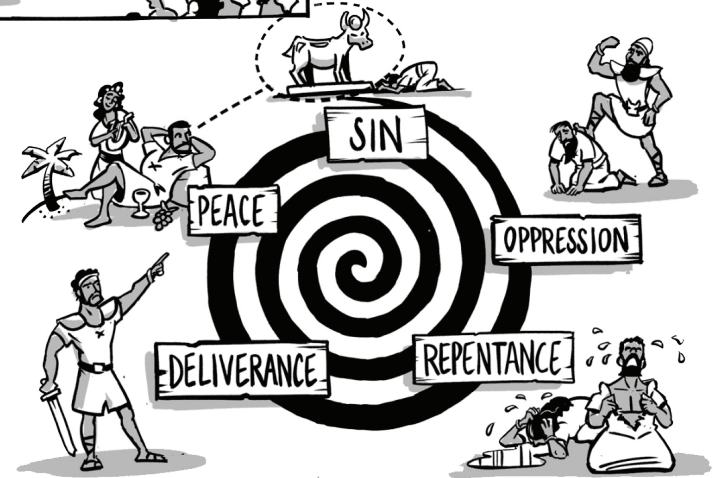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부르셨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옮겨가 살아가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을 받아들였는지를 기록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멈추고, 2장의 거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사사기 본문에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개요를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시기에는,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나선형으로 하향곡선을 그려지듯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족속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 정복당하고, 압제 되도록 허락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는 적을 무찌르고 평화의 시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런 반복 사이클이 사사기 본문 부분의 문학적 구성과 흐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여섯 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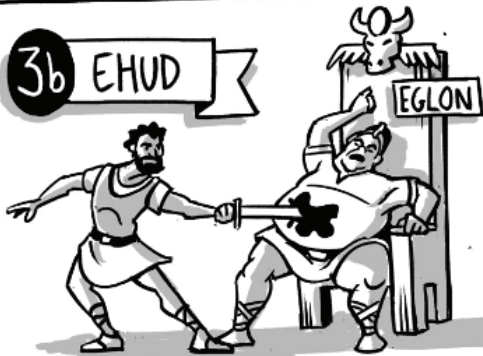


## PRETTY GOOD

3a OTHNIEL



3b EHUD



4-5 DEBORAH



3-1. 본론: 첫 세 사사  
(웃니엘, 에훗, 드보라)

첫 세 명의 사사들은 웃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서사소설 속에 나올 법하고 유혈이 낭자합니다. 사사 자신이 또는 사사를 돕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3-2. 본론: 다음 세 사사  
(기드온, 입다, 삼손)

다음 세 명의 사사들의 내용은 더 길며 사사들의 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기드온은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 백 명의 군사들로 햇불과 향아리만 가지고 그는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무찌릅니다.

## OKAY

6-9 GIDEON



FELLOW ISRAELITES



그러나 기드온은 성격이 고약하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투에서 자신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부터 기드온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기드온은 승리한 전투의 전리품인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 사사는 입다인데, 그는 산에 사는 마피아 두목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하자,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합니다. 입다는 아주 효율적인 지도자였고,

암몬 자손과 싸워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의 몰랐고, 그분을 가나안의 신처럼 대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THE EMPOWERMENT OF  
**GOD'S SPIRIT**  
≠  
**ENDORSEMENT**  
OF HUMAN CHOICES

**BAD**

**WORSE**



성품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주요 사사 중 마지막인 삼손은 더 더욱 최악입니다. 그의 삶은 약속으로 가득차서 시작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난잡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잔인하게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자신의 신실함(나실인의 정체성)을 팔아먹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도 대량 학살이라는 폭력적인 결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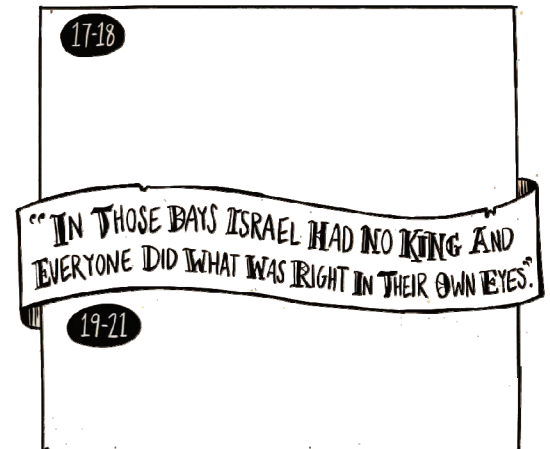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론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뭔지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사에게 힘을 주시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런 사사들의 행동의 전부나 혹은 일부라도 지지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지도자들 뿐이었는데도, 그나마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론 부분 전체(3-16장)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도록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조차 못할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지도자들 면면을 들여다 본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4. 결론부

비극적 사건 두 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 번 반복되는 핵심 구절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 미가 사건으로, 그는 개인적으로 신전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 군대가 그 신상을 약탈해갑니다. 단 지파는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버리며 그 거주민을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소름돋는 사건입니다.

17-21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은,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성적 학대와 폭력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첫 부족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충격적입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집트의 노예의 굴레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다시 구원 받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유일한 한 줄기 희망은 반복되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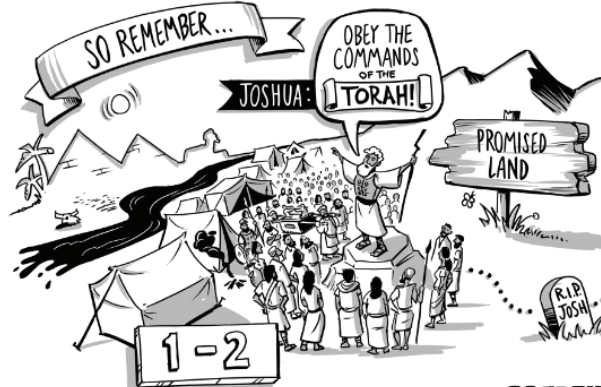


바로 다음 책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이 됩니다. 룯기는 다윗 왕가의

뿌리에 대해,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이야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를 갖습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한 정신이 번쩍드는 설명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보내사 그 백성을 구원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입니다.



# JUDGES

ISRAEL'S TOTAL FAILURE



created by the Bible Project

THE EMPOWERMENT OF GOD'S SPIRIT ≠ ENDORSEMENT OF HUMAN CHOICES

1-2

3-16

17-21

PRETTY GOOD ——— OKAY ——— BAD ——— WORSE

**1 CANAANITES**

JUDAH, BENJAMIN, JOSEPH, MANASSEH, EPHRAIM, ZEBULUN, ASHER, NAFTALI, DAN

MORAL CORRUPTION

CHILD SACRIFICE

A PEOPLE OF SIN

2

PEACE

OPPRESSION

DELIVERANCE

REPENTANCE

ISRAEL FAILS TO DRIVE OUT THE CANAANITES

**3a OTHNIEL**

**3b EHUD**

**4-5 DEBORAH**

Jael

Sisera

**6-9 GIDEON**

ONLY 300 MEN

MIDIANITES

FELLOW ISRAELITES

**10-12 JEPHTHAH**

help?

AMMONITES

GOD DEMANDS THIS...

ISRAEL NO LONGER KNOWS THE CHARACTER OF THEIR OWN GOD.

**13-16 SAMSON**

#PROMISCUOUS

#VIOLENT

#ARROGANT

PHILISTINES

CORRUPTION OF ISRAEL'S JUDGES

**17-18**

MICAH

DAN

LAISH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AND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19-21

SEXUAL VIOLENCE

VERY DISTURBING (AND THAT'S THE POINT...)

CIVIL WAR

CORRUPTION OF THE PEOPLE OF ISRAEL